“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범위 확대 해달라”

대다수 교육, 워크숍 등 행사성 경비로 활용
공동사업 추진 필요한 장비구입 등 확대 중요

박상래 기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자금 활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43개 협동조합 4,800여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조합원에 가입돼 있다. 가구, 공예, 광고물, 기계, 레미콘, 슈퍼마켓, 아스콘, 인쇄, 합성수지 등으로 협동조합이 구성돼 있다.

이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 전북도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활성화자금을 활용해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조합원인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원예산의 활용 범위가 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을 제한하고 있어 대다수 교육, 워크숍 등 행사성 경비로만 활용돼 중기협동조합 지속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서울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은 올해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대기배출시설(도창부스) 자가 측정비 구입’을 지원(54:46 매칭)받아 조합원들에게 직접 저렴한 가격에 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 협동조합의 사정은 다르다.

전북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은 2018년도에 협동조합 조합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앨범제작인쇄용 출력프린터 구매 불가로 공동사업 지원 자금 일부를 반납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요사업을 보면 공동생산, 수주, 판매, 구매, 검사, 연구개발 등 공동사업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업종과 지역을 대표해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경제조직이다.

전북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이성기 이사장은 “협동조합은 공동·협업사업 추진이 목적이며, 이런 사업의 추진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동 활용 장비구입 등 보조금 활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브리핑

용지농협 박광양 조합장, ‘우수조합장상’

전북농협 정재호 본부장은 8일 함께하는 우수조합장상에 용지농협 박광양 조합장을 선정해 시상했다.

박 조합장은 부임 이후 수도작 위주의 사업구조 개선 및 전작(佃作)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지역에 맞는 대표작목 육성을 위한 외부 컨설팅 실시로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2016년 이후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을 시작으로 저온저장 등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에 혼신을 다하여 고품질 구근류(고구마, 감자) 작물을 대형 유통업체(이마트 등)에 납품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했고 대형 공판장 납품 판매구조를 소포장 납품으로 개선하여 지역 농업인의 일자리 창출 및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양 조합장은 “그간의 부족한 성과에 대한 격려와 응원으로 금 번 상을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쟁력 있는 농협, 미래가 있는 농협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며, 시원유명(視遠惟明)의 자세로 어려운 농업·농촌이지만 멀리보고, 밝게 생각하며 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상래 기자

전북도 중기 성장사다리 성과보고 워크숍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캠틱종합기술원은 지난 7일 전주 왕의지밀에서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성과보고 및 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에는 도내 기업 총235개사가 선정돼 있다.

각 사업별로는 ▲돋움기업 40개사, ▲도약기업 43개사, ▲선도기업 70개사, ▲스타기업 57개사, ▲글로벌강소기업 25개사가 지정되어 있어 전라북도 경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전라북도 선도기업 지원성과 모니터링 분석결과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전라북도 선도기업은 전라북도 대조군 기업 대비 매출은 2.84%, 임금은 4.22%, R&D 투자비율은 4.67%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공유와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육성 체계의 개선방향, 차년도 기업지원 방법의 다양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간 사업 정책과 정보를 교류하였고, 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신규 사업 등을 논의하였다. /박상래 기자

농진청 양병준 주무관, 산업현장교수 선정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병준 주무관(48, 사진)이 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하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로 위촉됐다.

양 주무관은 기계분야 냉동공조 직종에서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로 선정돼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2024년 12월까지 3년간 특성화고와 중소기업 현장에 전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5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쌓아온 전문 기술인의 숙련된 기술을 일선 학교와 중소기업에 전수하기 위해 2012년부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 주무관은 전기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장, 배관기능장 등 28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건축분야 보일러 직종에서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의 기계설비 및 공조 시스템을 총괄 운영을 하고 있다. 축산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냉장·냉동고형 강제 배기장치, 전열식 발판 소독조, 방목가축을 위한 급수 시스템 등 농가에 도움이 되는 각종 설비를 개발해 총 3건의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양 주무관은 평소 재능기부를 통해 미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전수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형편이 어려운 전국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을 재능기부로 진행해 왔으며, 에너지안전 및 기계설비 관리 교육, 생활시설 수리 등 다양한 기술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박상래 기자

전북식품 ‘깐부상회’로 인기몰이

오징어게임 감성마케팅
수도권 판로개척, 4억 매출성과

전라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달 일산 킨텍스 '2021 킨텍스메가쇼 시즌2'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1 코엑스 푸드위크'에 참가해 매출성과를 올렸다.

코로나19로 힘든 도내 전통식품 및 우수영세기업의 오프라인 수도권 판로개척을 위해서다.

차별화된 뉴 감성 트렌드를 가미한 ‘전북은 깐부, 운동회 하는날’이라는 오징어게임 컨셉을 접목하여 ‘전북깐부상회’ 공동세일즈관을 운영하였고 약 40개사의 수도권 판로개척을 지원해 현장매출 약 1억원과 납품 계약성과 3억원 등을 포함해 총 4억원의 매출성과를 올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단순한 기업지원에서 벗어나 최신 핫 트렌드인 ‘오징어 게임’을 모델로 차별화 된 감성 테마 공동관을 구성하고 참가기업은 오징어게임 복장착용 및 다양한 홍보이벤트(딱지치기, 전북깐부 도시락 등)로 최근 유행하는 트렌드의 접목을 시도했다.

이에 현장 반응은 폭발적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메가쇼2021 시즌2 ‘소비자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참가기업 대상 사전 마케팅 컨설팅, 오징어게임 테마 연계 제품개선, 현장 라이브방송 등을 준비했고 재미있는 감성 제품들이 (‘줄다리기엔 복분자식혜, 참깨 꽃이 피었습니다, 깐부건강엔 청국장, 단짝불고기, 딱지치기엔 단팥죽 등) 참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바이어로부터 ’전북깐부상회‘ 컨셉으로 같이 진행하자는 제의가 쇄도했다.

이런 차별화된 마케팅서비스 제공에 참가기업 A사의 대표는 “영세기업 입장에서 박람회 참가 시 대형기업에 비해 마케팅에서 항상 열세였는데 이번에는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어서 판로개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전북기업으로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바이오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이번 행사는 전통식품 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사업의 일부 행사로 진행했으며, 코로나19 위기상황의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 전통식품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양한 유통 판로개척은 물론 수도권 소비들에게 알뜰한 구매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식품산업수도 전북의 전통식품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참가기업에게 다양한 유통 채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추가로 12월 9일부터 진행되는 수원 메가쇼 팔도밥상페어, 4일장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상래 기자

박병홍 농진청장, 취임 첫 행보 ‘농업인과 소통’

농촌지도자회 74주년 기념식 참석
농업 현안 해결 협력 당부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8일 농민회관에서 열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제 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농촌지도자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농촌지도자회의 그간의 역할과 주요 성과를 치하하고, 농업·농촌 현안과 위기 극복을 위해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청장은 “농업·농촌·식품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디지털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치유농업 산업기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업인 학습단체로 과학영농 현장실천과 농촌문화 창달, 농업인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47년에 설립됐다.

/박상래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ESG경영 도입… 사회적 책임 강화

ESG위원회 출범식, 경영 투명성 확보

전북테크노파크는 8일 전주 본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전라북도 산업과학기술 혁신거점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의 ESG경영 도입과 지역 기업의 ESG 도입 준비·확산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양균의 원장을 포함해 ESG 및 사회적가치 실현과 연관성이 높은 내외부 위원 6인으로 구성됐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약자로, 기업 경영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기업 경영 기준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적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에 ESG기준을 확대·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국내에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경영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공급망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이들 기업과 공급망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들도 ESG 경영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예: 자산 2조원 이상) ESG경영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됨으로 ESG경영보고서 공시 의무대상인 기업과 공급망에 있는 협력업체들도 ESG 경영관리에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대외 환경변화에 대한 기업의 ESG 대응 강화를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도내 최초로 기업의 ESG경영성과도를 측정하고 이러한 결과를 분석한 ESG 경영 보고서를 기업에게 제공하여 ESG 경영실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번 ESG위원회 출범을 통해 도내 ESG경영 도입 및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박상래 기자

우미건설, ‘군산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 8일 견본주택 오픈

오는 21일 1순위 청약 접수
디오션시티 잇는 신(新)주거타운

종합부동산회사 우미건설이 전북 군산 신역세권 D-2블록에 들어서는 ‘군산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 견본주택을 8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약 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2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우미건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견본주택 관람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우미린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며 평면과 인테리어 등도 VR로 관람 할 수 있다.

군산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은 지상 최고 25층 8개 동 전용면적 84~101㎡ 660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84㎡ 404가구 △95㎡ 34가구 △101㎡ 222가구다.

‘군산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은 서해와 접해 있어서 일부 가구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고, 금강시민공원, 금강체육공원, 강변 산책로 등 공원이 많아서 풍부한 녹지도 누릴 수 있다. 군산신역세권 중심상업용지와 바로 인접해 있어서 향후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도 있다.

‘군산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은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조망은 물론 채광과 통풍도 우수하다. 일부 가구는 테라스 특화설계를 적용해 소비자의 취향까지 반영했다.

부동산114가 실시한 '2021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에서 9위를 차지한 ‘우미린’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선호하는 부대시설을 이번 단지에도 반영했다. 주차장은 지하(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에 배치하고 차가 없는 지상공간에는 녹지, 조경시설은 물론 우미린 특유의 커뮤니티시설인 카페 Lynn 등이 조성됐다. 커뮤니티시설로는 실내체육관(하프코트),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연습장 등이 마련됐다. 탁월한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최상층 게스트하우스와 독서실(남·여), 작은 도서관 등 입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한편, 군산신역세권 택지지구는 108만 1,821㎡ 규모에 공동주택과 공원, 상업, 교육 등의 시설이 고루 갖춰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완성 이후에는 공동주택 6,600여 가구와 1만8,000여 명의 계획 인구로 군산 디오션시티를 잇는 신주거타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까운 강변로를 통하면 군산 원도심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주변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 금강로 등 광역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견본주택은 군산시 미장동 511-3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군산=백용규 기자